

2016 년 3 월 6 일(주일) 야고보서(15) “그리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약 4:6-10)

<도입>

야고보서에는 넘어야 할 두개의 산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2 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두번째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의 신앙에 닦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것과 짝을 이루는 한 주제를 살피겠습니다.

[1] “그러므로”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저자들은 서신서 앞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요청해서 행하신 일들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닙니다. 대표적 예 중의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조건을 이루신 것(십자가)에는 인간의 도움이나 조언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성취하신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감동받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전반부를 보면 인간 요청이나 개입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행하셨고 이루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롬 1-11 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2] ‘그리하면’의 신앙

그런데 성경은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면(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상과 보상과 유업의 특별한 축복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실질적인 축복의 삶을 향하게 하심으로 2 차적으로 이중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6 절 “그러나(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 ‘그러나’ 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정욕(삶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pleasure)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아직도 기회가 있고, 무엇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는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면(그리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7~10 절까지 ‘그리하면’을 찾으며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하면’의 삶의 내용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불가항력적이지 않은(저항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세 측면:

- (1) 구원하는 은혜(saving grace) 엡 2:8,9 –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은혜.
- (2) 억제하시는 은혜(overruling or restraining grace) – 요나의 인간적 뜻을 막으시는 은혜. 이와 같이, 야고보 교우들도 억제하시는 은혜에 의해 자신들 방식으로 일을 이룰 수 없었음. 대부분 여기에 머물/
- (3) 체험적 은혜(experimental grace) – 야고보가 염두에 둔 차원. 이것은 삶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 삶의 힘의 차원을 말함.

야고보의 강조는 구원받고 보전된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성화(성숙)되기 위한 체험적 은혜를 말합니다. 이 체험적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품위 있게 대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예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더욱 큰 은혜가 불가항력이라면 모든 신자들은 동일하게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더욱 큰 은혜가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열망하시듯이 우리도 이 은혜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의 신앙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맺음>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처할까요?

신앙 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믿음으로 삶에 힘이 난다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삶의 가치나 의미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원으로 일하고 사역하지, 현재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은혜의 기회로 취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역사,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희생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수준에 머물 정도로만 은혜를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나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나 정도면 됐지 라는 판단은 내가 갈 수 있는 끝에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으며 더욱 큰 은혜의 세계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지 기대하시면서 말씀의 순종에 매진하십시오. 분명히 내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그러므로’의 신앙과 ‘그리하면’의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는 언제 체험될까요?
3.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지 생각해 보십시오.